

(군산 시청

) 귀하

안녕하세요 저는 성산초에 다니는 양미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권이란 사람이 태어나면서 부터 가지고
사람이라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여

옛사람들중 모두가 알만한 세종대왕님은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드셨죠. 한자보다 쓰는것도 이해하는 것도
쉬운 한글 덕분에 백성들은 편하게 글을 쓸수 있었습니다.

또한 옛날에는 상언이라는 제도로 억울한 일을 문서에 작성하여
임금에게 호소할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글을 만들기 전이라 한자를
아는 양반 또는 상인만 할수 있었죠. 그리고 오늘날 희안하게도
가해자의 인권을 위해 사형이라는 벌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산에 살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곳에는 버스가
하나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2시간 간격으로요 그래서
약속시간도 버스시간에 맞춰 해야했고 어떤 특정시간에만
가능한 사람들과는 약속잡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 물론
시내에서 제가 사는곳으로 가는 버스도 하나 뿐이죠. 버스 시간이
맞지 않아 먼 거리를 걸어간적도 꽤 있었습니다. 저 뿐만이

() 귀하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많이 불만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버스가

더욱 많이 온다든지 시간간격을 좀 줄여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주신다면 시내버스도 인해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록 가능케하는 것이 많이 힘들수는 있지만 이걸로 인하여

불편하고 피해 받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더욱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말 편리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산초등학교 양미란 드림